대구주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2014. 7. 6. (가해) 제1897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http://www.daegujubo.or.kr

대구대교구 사제 성화의 날 미사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마태 10,17-22 참조)

김대건 신부님께서 아직 신학생이시던 때부터 순교하실 때까지, 줄곧 목숨을 걸고 이루려고 애쓰신 큰 사업은 바로 성직자 영입이었습니다. 막 복음의 싹이 돋고 있는 이 땅에 말씀의 봉사자가 한 분이라도 더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생을 봉헌할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에 성인 신부님을 모시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1독서 2역대 24,18-22 **제2독서** 로마 5,1-5 **복 음** 마태 10,17-22

입 당 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화 답 송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임자”를 향한 일편단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송재준 마르코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께서는 1821년 충청남도 솔뫼에서 태어나시어, 1845년 중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 서품되셨습니다. 당시 혹독했던 박해 아래 1년여 동안 헌신적으로 교우들을 돌보시다 1846년 한강 새남터에서 25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하게 순교하셨으며, 1984년 복자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순교하시기 전,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보내셨던 옥중서간의 말씀입니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 주은(천주의 은혜)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다.” 여기서 신부님은 하느님을 “**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자”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한자로는 ‘主人’을 뜻합니다. 신부님은 인간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임자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보람이요, 귀한 가치임을 일깨우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효성을 다하도록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 “나의 최후의 시각이 당도하였으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내가 … 이제 죽는 것도 천주를 위하는 것이니 바야흐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에 영복을 얻으려거든 천주교를 믿으시오.” 진정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이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희광이가 휘두르는 칼조차도 김대건 신부님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임자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심으로써,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영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김대건 신부님이 시성되신지 30년이 되는 올해 8월, 우리는 새로운 복자(福者) 124위의 탄생을 맞게 됩니다. 임자이신 하느님을 온 삶을 다해 사랑하시고 증거하셨던 김대건 신부님과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오늘 우리도** 인간 생명의 참된 임자이신 하느님께 효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어떠한 곤경 가운데에서도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살도록 노력하여야겠습니다.

②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순교로 꽃피운 형제애

고성운 요셉(?-1816)의 순교이야기

형제간에 우애 있는 집안을 보면 참 부럽다. 부모를 서로 돌보려 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챙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하느님이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때 부모로서도 자식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이런 저런 일로 형제간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순교자 고성운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

고성운 요셉
(?-1816)

고성운 요셉은 고성대 베드로와 형제간으로, 충청도 덕산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하느님을 알았다. 그는 본래 성격이 착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며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이었다. 그는 효성도 지극하여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그의 형 베드로와 함께 8개월 동안 병수발을 들며 기도하였다. 그들 형제는 언제나 합심하여 영적독서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었으므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형 베드로가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목숨을 보존하려 배교하여 돌아왔다가 뉘우치자, 두 형제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 후 경상도 청송 노래산으로 거처를 옮겨 신앙생활을 하던 중 1815년 부활대축일 때 체포되었다. 포졸들이 들이 닥쳤을 때 처음엔 도적들이 온 줄 알았다. 몸이 날쌔고 기운이 아주 센 요셉의 지휘에 따라 그들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이내 도적이 아니라 포졸들임을 알게 되었다. 교우들은 저항을 멈추었고 요셉은 어린 양처럼 양순하게 맨 먼저 순순히 포승을 받았다. 경주진영을 거쳐 대구감영에 이르도록 문초를 겪을 때마다 두 형제는 한결같았다.

힘든 인생길에서 형제지간에 함께 하느님 안에서 힘이 되어 주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인간적 위로가 또 있으랴. 두 형제가 혹독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함께 신앙을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 조정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형은 사악하고 아우는 요사하여 서로 그 사악함을 도와주었습니다." 17개월의 옥살이를 마감하고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요셉도 형과 같이 동정으로 살아왔다. 참수 직전 망나니에게 '내 머리를 단번에 자르도록 하라'고 이를 정도로 순교에 대한 그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었다.

순교자 고성운 요셉님! 하느님 안에서 순교로 꽃피운 형제애를 저희도 닮을 수 있도록 주님께 전구해 주소서.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왜 사느냐 묻거든

김종한 안드레아(?–1816)의 순교이야기

김종한 안드레아
(?–1816)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라는 시구가 생각난다.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 물으면 '마지못해 산다.', '그냥 산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잊고 지내다가 장례미사에 참여할 때면 더 느끼게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그런 때 순교자 김종한 안드레아가 남긴 편지를 읽어 보면 어떨까?

"실로 누구라도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 중요한 것은 선종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며 천국을 얻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이라, 그것을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입니다. 마치 사다리와 같아서 그것을 타고 올라갈 수도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 모든 게 지향을 선하게 두었느냐 악하게 두었느냐에 달린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 감내하면, 그것이 영혼 구원에 작용하고 천국을 얻게 해 줍니다."

"저는 순교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며, 감히 이 마지막 은혜를 바라기까지 합니다. 제가 만일 이 훌륭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삼구(三仇)에 대적해 나가겠습니까? … 만약에 제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것을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고, 다음으로는 여러 교우들의 기도를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의 현실이 그의 영혼을 흔들었지만 그의 신앙과 일상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향한 그의 노력과 힘들 때 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교우들의 기도를 청할 줄 아는 겸손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리라. 김종한 안드레아는 충청도 솔뫼에서 김대건 신부의 증조부인 김진후 비오의 아들로 태어나 박해를 피해 경상도 영양 산골에서 살았다. 1815년 포졸들에게 잡힐 때까지 17년 동안 끊임없는 기도와 자선 그리고 극기로 덕행을 쌓으며 복음을 전하다 대구형장에서 순교하였다.

순교자 김종한 안드레아님! 저희 삶의 목적도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빌어주소서!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④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

7세기 초, 어린 나이로 노예가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침공한 노르만 군인들에게 붙잡힌 것인데, 예쁜 얼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마음씨도 착하고 똑똑한 탓에 눈에 띄어, 프랑크 왕 클로비스 2세의 궁중 시종장 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왕의 시중을 들게 되었는데, 그녀의 미모와 재치에 사로잡힌 왕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왕이 노예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프랑크 왕국의 왕비가 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오른 어린 아들을 도와 섭정을 하면서 10년 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녀의 통치기간 동안 프랑크 왕국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성녀 바틸다(c626~680)는 왕후가 되고 섭정이 된 후에도 늘 겸손했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수도원을 곳곳에 세워 교육과 자선 사업을 일으키고 왕실 재정을 아껴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정책은 노예 매매 근절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프랑크 왕국은 미국의 노예 해방을 무려 1200년이나 앞서서 국법으로 노예 매매를 금지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마음씨 착한 왕비는 자주 사비를 털어 이미 노예로 팔려간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세 아들은 모두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태후의 지위를 버리고 왕궁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고아들과 병자들을 돌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금주의 성인

7월 6일	성녀 고델리바(순교자, 1045~1070년), 성녀 도미니카(동정순교자, 캄파니아, 303년경) 성녀 마리아 고레티(동정순교자, 1890~1902년), 성 트란퀼리노(신부, 순교자, 로마, 286년) 성 로물로(베드로의 제자, 주교, 순교자, 피에졸레, 90년경)
7월 7일	복자 베네딕토 11세(교황, 1240~1304년), 성녀 에텔부르가(수녀원장, 파르무티에, 664년) 성 판테노(선교사, 신학원장, 200년경), 성 팔라디오(주교, 아일랜드, 432년)
7월 8일	성녀 순니바(동정녀, 노르웨이, 10세기), 성 아퀼라(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1세기) 성 칠리아노(주교, 순교자, 뷔르츠부르크, 689년경), 성 하드리아노 3세(교황, 885년) 성녀 프리스킬라(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1세기)
7월 9일	성 니콜라오 픽크(신부, 순교자, 고르쿰, 1572년), 성녀 에베릴다(수녀원장, 700년경) 성녀 베로니카(수녀원장, 신비가, 1660~1727년)
7월 10일	성녀 루피나(동정순교자, 로마, 257년), 성녀 세쿤다(동정순교자, 로마, 257년) 성녀 아멜베르가(동정녀, 템세, 772년경), 복자 엠마누엘 루이스(수도원장, 순교자, 1860년)
7월 11일	성 드로스탄(수도원장, 디어, 610년경), 성 비오 1세(교황, 순교자, 154년경) 성 베네딕토(수도원장, 설립자, 누르시아, 480~547년), 성녀 올가(과부, 키예프, 879~969년) 성 올리베리오 플런케트(대주교, 신학자, 순교자, 아일랜드, 1629~1681년)
7월 12일	성녀 마르치아나(동정순교자, 톨레도, 300년), 성 야손(순교자, 1세기경) 성 요한 괄베르토(설립자, 수도원장, 995~1073년), 성 펠릭스(군인, 순교자, 밀라노, 303년)

■『복음의 기쁨』 강연회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 영성분과에서 주최하고 교구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권고 '복음의 기쁨' 강연회가 6월 2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교황청 정의평화의회 사무총장이신 마리오 토소 대주교님의 강의로 개최되었다.

■ 사제 성화의 날 미사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27일(금) 오후 4시 교구청 내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교구 사제단과 함께 2014년 〈사제 성화의 날〉 미사를 공동집전하셨다.

영과 육

박성규 엘리지오

⑥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 이동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7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7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 교육관 대성당

성소 | 피정

제2차 천주섭리 SDP 캠프
기간: 8.8(금) 14:00~10(일) 13:00
장소: 수원 본원 수녀원
대상: 중·고 여학생
마감: 7.26(토)까지, 선착순 50명
문의: 천주섭리수녀회, (010)3940-3635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 주말
321차: 7.11(금)~13(일)
322차: 7.25(금)~27(일)
323차: 8.15(금)~1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7.15(화)~16(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부산6차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
기간: 7.18(금)~21(월)
장소: 부산 광안리 성분도은혜의집
회비: 32만 원
문의: 한국가톨릭교수회
(010)9363-7784 / (010)3806-7784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7.18(금) 17:30~20(일)
4박 5일: 7.14(월) 14:00~18(금)
8박 9일: 8.11(월) 14:00~19(화)
이냐시오: 8.11(월) 14:00~19(화)
문의: 예수마음배움터, (031)946-2337

숨은꽃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피정)
기간: 7.26(토)~27(일), 부산 명상의 집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 회비: 3만 원

렉시오 디비나 피정
기간: 7.28(월)~31(목)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동반: 이영근(아오스딩) 수사
회비: 20만 원
문의: (051)753-5744 / (010)7720-5744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디비나(성독) 입문 피정
기간: 8.6(수)~10(일) 4박 5일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피정의집
피정비: 30만 원(1인 1실)
지도: 허성준 신부(OSB), 이경희 수녀(OSB)
문의: (010)7558-5317

교육 | 모집

성모기사회(작은꽃모임) 회원 모집
일시: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19:00
장소: 프란치스카눔
대상: 20~30대 청년 누구나
문의: 최한수(알베르토), (010)7169-1671
박상규 신부, (010)5380-8615

14학년도 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6.30(월)~7.11(금)
문의: 850-3505(교육대학원),
660-5511~5513(특수대학원)
http://www.cu.ac.kr

양업고등학교 가톨릭 대안교육 연수회
기간: 7.26(토)~27(일) 1박 2일
주제: 좋은학교 만들기
대상: 대안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
문의: (043)260-5076
입학전형 안내도 함께 합니다.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일시: 10.10(금) 스페인산티아고순례 14일
11.4(금) 이스라엘 순례 9일 / 11일
주제: 걸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10)4566-6476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외래교수
☎053)626-8881~5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국가자격 장례 지도사
국비지원계좌제 및 일반반 모집
▶ 취업준비생 ▶ 퇴직준비하시는 분
▶ 창업하실분 ▶ 남녀,나이,학력 제한없음
※ 무시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대경장례지도사교육원
(경상북도 지정 제4호)
☎ 053)813-7006

길 안 건 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칠
☎ 053)556-6257 김 기 석
010-6608-6257 (다니엘)

일 본 성 지 순 례
- 매월 출발 -
이라도, 나가사키 - 09월 24일
- 12월 03일, 17일
오이타, 유후인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 · 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www.appleuro.com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전 문 의 원장 강 일(베드로)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PBC 대구평화방송 (FM 93.1MHz) 오늘의 강론 7월 7일(월)~7월 12일(토) 06:50, 18:50 김성근(요셉) 신부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4(월)~6(수), 무학연수원
중3~고2: 8.6(수)~8(금), 무학연수원
고3·대학·일반: 7.22(화)~24(목), 한티 피정의 집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중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청: 각 본당 사무실 / 마감: 7.6(일)

교육 | 모집

제35기 예비신자 교리반 봉사자 학교

기간: 7.14(월)~18(금) / 3만 원
주간 14:00~17:00 / 야간 19:30~21:30
(30명 이하 교육 취소)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 마감: 7.8(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상반기 정의평화위원회 함께꿈 월례 특강

일시: 7.9(수) 19:30
장소: 1대리구청 강당
주제: 환경과 생명(물-4대강)
강사: 김정욱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문의: (010)5923-3163

성요셉성당 성전건축기금마련 풍기인견 판매

기간: 6.1(일)~7.15(화) 토, 월 제외
매일 11:00~15:00 / 주일 12:00까지
장소: 성요셉성당(월촌역 1번 출구)
문의: (010)9509-7755

제11회 청소년문학캠프-여름엠마우스

기간: 7.25(금)~27(일)
장소: 대구가톨릭대 기숙사 및 강의실
내용: 문학강의, 백일장, 시낭송 등
회비: 3만 원, 7.22(화)까지 / 종교무관
주관: 교구 청소년국 / 대구가톨릭문인회
신청: 이왕조, (010)8210-7598(문자접수)

바오로몬테소리 20주년 기념 학술제

일시: 7.26(토) 9:00~15:00
장소: 대구가톨릭신학대학교 대강당
신청: 7.12(토)까지 선착순 마감
홈피: pmi.daegu.kr(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칠곡, 평화의 누릿길(예술과 함께하는 토요여정: 작은음악회 등)

출발: 9월 20, 27 / 10월 4, 11, 25
11월 8, 15, 22, 29 / 12월 6 / 09:00
버스이동 / 2만 원(중식제공)단체신청가능
주최: 칠곡군 / 대구PBC, 251-2610

대구 가톨릭남성합창단 신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플룻, 바이올린, 오카리나, 통기타,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백세건강강좌(무료) / 문의: 476-6211

한중(韓中)천주교 친선협회 회원모집

대상: 공동체를 즐겁게 활동할 모든신자
중국어(성경,성가,미사전례,회화 등)
중국(성지순례,테마여행,피정,홈스테이,
봉사활동,어학연수,문화,경제교류 등)
문의: 계산문화관, (010)2662-1560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7.19(토)~8.16(토)
대상: 초4~고3(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ARS 4번)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채용 | 안내

산격성당 사무원(여) 채용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문의: (010)3057-7698

선목학원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채용

원서접수: 7.10(목)~11(금)
접수처: 학교법인 선목학원 법인사무국
문의: 660-5161 / mica@cu.ac.kr
http://www.dgsunmok.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전원주택
대표/건축사 성호근(다니엘) 이종배(안드레아)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판제(루까)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박의현 구심내과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져,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 · 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 · 중풍 · 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용
24시간 전문간병인 · 의사 · 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용, 양 · 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일 : 오전 9시~밤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밤 9시 까지
대표전화 260-7777 예약전화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옆(구.달성군청자리)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Legend of Royal
Rex Diamond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묵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동일주차장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